

2010년 중앙성당 성지순례 계획

1. 성지순례의 목적

순교자들의 정신과 삶, 죽음을 기억하고 배워서 오늘의 순교자로 산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신앙 선조들의 삶에 나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그들이 가졌던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똑같이 느끼기 위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5월 21일 09:00 ~ 17:00
- 장소 : 명례성지 및 순교자 신석복(마르코) 묘소

3.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00 ~ 10:00	○ 이동(중앙성당-명례리)	버스안 기도
10:00 ~ 11:30	○ 1진 : 도보묵상(약 5Km) ○ 2진 : 명례성지로 이동	도보묵상 및 성지행사 자료
11:30 ~ 12:30	○ 미사 봉헌	명례성지
12:30 ~ 13:30	○ 중식 및 휴식	밀양영화학교
13:30 ~ 14:30	○ 성경퀴즈	"
14:30 ~ 15:00	○ 이동(명례성지-신마르코 묘소)	
15:00 ~ 16:00	○ 묘소참배	순교자 묘소
16:00 ~ 17:00	○ 이동(신마르코 묘소-중앙성당)	

4. 준비사항

- 참가자 접수 : 5월 16일까지(사무장)
- 참가비 : 1인당 1만원(예상인원 200명)
- 버스 대절 : 5대
- 봉사자 : 사목위원 및 전례부원
- 기도문, 성지 안내서 등...
- 개인준비물
 - 묵주, 간식, 돗자리 등
- 단체준비물
 - 중식(도시락), 음료수, 천막, 핸드마이크
 - 성경퀴즈 문제 및 상품
- 사전답사

명례성지

명례 성지: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1122
사무실☎: 055-391-1205 (반송성당: 055-262-0985)
사제관☎: 010-3166-0773 (이제민 신부); 홈페이지: www.rijemin.com

■ 신앙의 고향 명례

천주교 마산 교구의 영적 고향이며 신앙의 원천인 명례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양과 김해를 잇는 나루가 있던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명례는 네 가지 점에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1828-1866년)가 출생한 곳이며, 신석복의 순교를 가능케 한 교우촌이 형성된 곳이다.

둘째, 영남지방의 네 번째 본당이자 마산교구의 첫 본당이 설립된 곳이다(1897년).

셋째, 명례의 첫 주임이었던 강성삼신부(1866-1903년)가 사목하다가 돌아가신 곳이다. 강 신부는 김대건, 최양업에 이어 세 번째 방인 사제로서 한국 땅에서는 처음 서품된 사제다(1896년 서품).

넷째 현재 남아 있는 성전건물의 문화사적 가치이다. 이 건물은 첫 성전(1928년)을 축소 복원한 것(1938년)인데, 남녀 석이 구분되어 있는 성전내부와 벽 쪽을 향한 제대와 그 위에 모신 십자가와 장미의 성모님에게서 초기 신자들의 신앙과 영성을 느낄 수 있다.

■ 명례 성지 연표

- 1784년 이승훈 북경성당에서 영세. 한국천주교회 창립.
- 1785년 추조(秋曹)적발 사건. 김범우 밀양 단장면으로 유배.
- 1827년 정해 박해. 피난 교우들 영남에 등장.
- 1828년 신석복 마르코 명례리 1209번지에서 출생.
- 1866년 병인 박해. 3월 31일 신석복 대구 감영에서 순교.
- 1886년 영남지방 첫 본당인 대구본당 설립. 초대 주임 김보록 로베르 신부.
- 1887년 김보록 신부 명례 방문 공소 신설.
- 1897년 영남지방 네 번째 본당이자 현 마산 교구의 첫 본당 인 명례본당 설립.
- 1898년 1월 초대 주임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 부임.
- 1903년 9월 강성삼 신부 명례에서 선종. 명례 마산본당 공소가 됨.
- 1926년 재건 명례본당 설립. 권영조 마르코 신부 부임.
- 1928년 기와성전 완공 후 낙성식.
- 1930년 삼랑진으로 본당 이전. 명례 삼랑진본당 공소가 됨.
- 1935년 성전 태풍으로 전파. 명례 진영본당의 공소가 됨.
- 1938년 성전 축소 복원하여 낙성. 현 건물.
- 1996년 10월 21일 수산성당 설립.
- 2008년 9월 명례성지 조성 추진위원회를 마산교구에서 승인.
- 2009년 6월 19일 사제의 해를 시작하면서 마산교구 사제단 명례성지 방문.

■ 명례 지방의 천주교 전파

조선 천주교 초창기 교우들은 주로 경기지역에 살았다. 박해가 일어나자 피신처를 찾아 전국으로 흩어졌다. 명례에 피난 교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27년 정해박해 이후이다. 그들은 낙동강을 따라 내려오다 이 지역에 정착하였는데 명례에는 나루가 있어서 피난교우들이 정착하기에 좋았다. 1895년에 발간된 '치명일기'에는 병인박해(1866년) 때 순교한 이곳의 교우 두 분의 이름이 실려 있다. 백산리에 살던 오 야고보와 명례리에 살던 신 마르코다.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는 1828년 명례에서 출생하였고 1866년 대구에서 순교하였다.

1887년, 대구본당(1886년에 설립, 영남지방의 첫 본당)의 초대 주임신부인 김보록 로베르 신부가 명례를 방문하여 성사를 집행하였으며 주민 5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명례에 공소를 설립한 후 1890년까지 매년 명례를 방문하였다.

1897년 9월에 명례공소는 본당으로 승격되고 1898년 1월 초대주임으로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강 신부는 밀양, 언양, 경주, 기장, 양산, 동래에 이르기까지 15개 공소를 사목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당시 총 교우 수는 547명이었다. 본당승격 소식을 접한 명례 교우들이 현 위치(명례리 1122번지)에 120냥을 주고 세 칸짜리 집을 구입했다. 강 신부가 1903년 선종하자 명례 본당은 마산본당(완월동)의 공소가 되었다.

1926년 5월 '재건 명례본당'이 설립되고 갓 서품된 권영조 마르코 신부가 2대 본당신부로 부임하여 1928년 8월 기와로 된 성당을 봉헌하였다. 이 성전은 1935년에 태풍으로 전파되었다. 현재의 성전 건물은 1938년 축소하여 지은 것이다. 권 신부는 1930년 본당을 교회의 중심지인 삼랑진으로 옮겼고, 명례본당은 삼랑진본당 관할 공소가 되었다. 1935년에는 진영본당이 설립되자 그 공소가 되었고, 1996년에는 수산에 본당이 신설되면서 명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되었다. 명례의 역사적 가치가 새로 조명받으며 2008년 명례성지 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마산교구가 이를 승인하였다.

■ 초대주임 강성삼 신부

강성삼(라우렌시오) 신부는 1866년 7월 15일 충남 홍산(現 부여)에서 출생했으며 1881년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나가사키 신학교를 거쳐 1882년 말레이시아의 페낭 신학교에서 10년간 수학하였다.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가 완공되자 조선으로 돌아왔다. 강성삼 신부는 1896년 4월 26일 서울의 약현성당(現 중림동 성당)에서 강도영, 정규하 신부와 함께 서품되었다. 조선에서 실시된 첫 서품식이었고 생년월일에 따라 강도영 신부가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에 이어 세 번째, 정규하 신부가 네 번째, 강성삼 신부가 다섯 번째 사제로 기록되었다.

강 신부는 서품 전에 부산본당 3대 주임신부로 내정되었지만 건강 때문에 부산본당의 일부를 분할하여 사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897년 명례에 본당이 설립되고 강신부는 이듬해 1월에 부임하였다. 첫 해 그가 사목한 구역은 밀양, 경주, 언양, 양산, 기장, 동래까지였고 1900년부터는 밀양, 김해, 창원 일대만 맡았다. 건강이 악화되어 1903년 9월 19일 젊은 나이로 선종하였다. 그의 시신은 명례에서 20리 떨어진 '대미공소' (現 삼랑진읍 미전리)에 안장되었다가 1971년 9월 부산 용호동 성직자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

1828년 경상도 밀양의 명례(현 경남 밀양읍 명례리 1207번지)에서 출생한 신석복(申錫福) 마르코는 소금과 누룩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창원 마포로 장사를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오 야고보 등과 함께 대구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여 년이 되던 해였다. 포졸들은 마르코의 집을 찾아내어 재산을 탈취하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목인 김해 가산에서 그를 체포하였다. 밀양에 하루를 머무르는 동안 포졸들이 그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고 대구로 끌고 갔다. 그의 형제들은 돈으로 포졸들을 포섭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르코는 형제들에게 “한 푼도 포졸들에게 주지 말라.” 고 했다. 대구 감영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 유혈이 낭자하고 뼈도 부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나를 놓아 준다 하여도 다시 천주교를 뉘엿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장은 마르코에게 더욱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다. 그런 다음 교수형을 집행하였다. 1866년 3월 31일(음력 2월 15일)이었고, 그의 나이 38세였다. 이후 마르코의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에 안장하려 하였지만 동네 유지들이 반대하여 강을 건너지 못하고 노루목에 묻었다. 그의 묘는 1975년 진영 성당 공원묘지로 이장되었다. (신석복은 1975년부터 진영 공원묘지에 묻혀 있다)

■ 명례본당과 강성삼 신부

명례본당과 강성삼 신부

로베르(Robert 김보록)신부가 1897년 6월 9일 뮌헨주교에게 올린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저는 낙동강 가에 위치한 밀양군의 명례마을이 신부님(강성삼 라우렌시오)의 사제관을 두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이 부산 절영도(영도)에 자리를 잡으신 것은 임시 방편이며 지금 으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성공이 없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미온적인 신자들로 하여금 신자로서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신부님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도직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섬에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명례와 같은 큰 마을은 다릅니다 그곳에는 고백성사를 받을 신자들이 100명 정도되는 데다 신자들도 열심히 편하게 삽니다 이 마을에서 매년 많은 수의 성인영세자가 나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전 주민들을 교회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기대할 만합니다 110리 라는 거리도 유리합니다 현재처럼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우도(Oudot 부산 본당신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틀이면 어렵지 않게 왕복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부산으로 가는 배편이 있으며 돌아올 때에는 만조를 이용하여 90리를 배편으로 올 수 있는데 매일 나룻배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교님께 경의를 표하며 주님안에서 주교님께 충성 할 것을 다짐합니다”

명례성당 안에서 미사



주교님과 함께 도보 성지 순례 후



수산성당에서 명례성지까지 도보 묵상(약 7Km)



명례성지 정경



명례성당 내부



명례성당 외부



순교자 신석복(마르코, 1882년~1866년) 묘소

■ 성지 소개



순교자 신 마르코는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明禮里)에서 살았다.

명례 지방은 일찍이 피난 교우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마르코와 그의 가족들은 이들의 권면으로 신자가 된 듯하다. 그의 형제들은 마르코가 순교할 때는 신자가 아니었고 훗날 모두 입교하였다.

순교자는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대구에서 내려온 포졸들에게 붙잡힌다. 창원 쪽으로 장사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다. 함께 갔던 오(吳) 야고보도 체포된다.

‘병인 치명 사적’에 따르면 포졸들은 마르코가 신자인 것을 알고 동네로 잡으러 왔었다. 그러나 장사 나가고 없었기에 포졸들은 며칠을 기다린 뒤 돌아오는 마르코를 길에서 체포한 것이다. 그들은 순교자를 밀양으로 압송한 뒤 하루를 지냈다. 그 동안 형제들이 포졸들에게 돈을 주고 빼내려 했지만 순교자는 완강히 거절했다.

마르코는 대구로 압송되었고 혹독한 심문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수차례의 문초와 형벌로 유혈이 낭자하고 뼈가 부러졌다. 그렇지만 마르코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저를 놓아주신다 해도 다시 천주교를 뉘행할 것입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 말에 관장은 화를 냈다. 순교자는 9일간 더 감옥에 있다가 1866년 2월 15일(음) 교수형(絞首刑)을 받아 순교하였다.(양력 1866년 3월 31일) 그의 나이는 39세 때였다.

이후 마르코의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찾아다 고향에 안장하였다. 마르코의 유해는 그의 아들 이나시오가 돈을 가지고 대구로 가서 모셔왔다. 그러나 명례에는 지방 유지들의 반대로 모시지 못하였고 부득이 낙동강 건너 한림정(翰林亭) 뒷산의 노루목(김해군 한림면 장방리)에 안장하였다. 그 후 진영본당에서는 순교자의 묘소가 야산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본당 공원묘지로 이전하였다.(1975년 12월 1일)

■ 소재지(주소)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 247(진영 성당 공원묘지) : 진영역을 지나 1.5Km 쯤 위치

■ 연락처

진영 본당 사무실 (055) 343-2018

성지순례관련 지도

신석복 묘소 지도



명례성지 지도



도보 성지순례 코스



출발지



도착지



* 103위 한국성인 호칭기도 *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당신 성전으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리 나라의 성인들이 천상의 모든 성인과 함께
 우리와 소리를 맞추어 전구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 정하상 바오로
 성 이호영 베드로
 성 정국보 프로타시오
 성녀 김 아가타
 성녀 박 안나
 성녀 이 아가타
 성녀 김업이 막달레나
 성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성녀 한 바르바라
 성녀 박희순 루치아
 성 남명혁 다미아노
 성 권득인 베드로
 성 장성집 요셉
 성녀 김 바르바라
 성녀 이 바르바라
 성녀 김 로사
 성녀 김성임 마르타
 성녀 이매임 데레사
 성녀 김장금 안나
 성 이광렬 요한
 성녀 이영희 막달레나
 성녀 김 루치아
 성녀 원귀임 마리아
 성녀 박 마리아
 성녀 권희 바르바라
 성 박후재 요한
 성녀 이정희 바르바라
 성녀 이연희 마리아
 성녀 김효주 아녜스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 범 라우렌시오
 성 나 베드로
 성 정 야고보
 성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녀 허계임 막달레나
 성 남이관 세바스티아노

성녀 김 올리에타
 성녀 전경협 아가타
 성 조신철 가롤로
 성 김제준 이냐시오
 성녀 박봉손 막달레나
 성녀 홍금주 페르페투아
 성녀 김효임 골롬바
 성녀 김 루치아
 성녀 이 카타리나
 성녀 조 막달레나
 성 유대철 베드로
 성녀 유 체칠리아
 성 최창흠 베드로
 성녀 조중이 바르바라
 성녀 한영이 막달레나
 성녀 현경련 베네딕타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
 성녀 고순이 바르바라
 성녀 이영덕 막달레나
 성녀 김 데레사
 성녀 이 아가타
 성 민극가 스테파노
 성 정화경 안드레아
 성 허협 바오로
 성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성 홍병주 베드로
 성녀 손소벽 막달레나
 성녀 이경이 아가타
 성녀 이인덕 마리아
 성녀 권진이 아가타
 성 홍영주 바오로
 성 이문우 요한
 성녀 최영희 바르바라
 성 김성우 안토니오
 성 현석문 가롤로
 성 남경문 베드로
 성 한이형 라우렌시오

○ 성녀 우술임 수산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임치백 요셉
 성녀 김임이 데레사
 성녀 이 아가타
 성녀 정철염 가타리나
 성 유정를 베드로
 성 장 시므온
 성 백 유스토
 성 김 헨리코
 성 서 루도비코
 성 남중삼 요한
 성 전장운 요한
 성 최형 베드로
 성 정의배 마르코
 성 우세영 알렉시오

성 안 안토니오
 성 민 루가
 성 오 베드로
 성 장주기 요셉
 성 황석두 루가
 성 손자선 토마스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성 조화서 베드로
 성 손선지 베드로
 성 이명서 베드로
 성 한재권 요셉
 성 정원지 베드로
 성 조윤희 요셉
 성 이윤일 요한
 하느님의 모든 성인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저희를 구원주소서.
- 온갖 악에서
 모든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이 되신 주님의 신비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 죄인들이 청하오니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스리며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사도좌와 모든 성직자를 진리 안에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우리 민족이 화목하고 평화로이 살게 해주시기를 청하오니
 주님을 섬기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 모든 은인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청하오니
 땅을 지키고 일구는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청하오니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를 용서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모두 다스리시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모든 성인의 전구를 들으시고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124위 순교자 시복 시성 기도문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십자가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느님 아버지
영광과 찬미받으소서.
주 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주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에게
시복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들과 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악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도와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 순교자 시복 시성 주교특별위원회 공식 기도문>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히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
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께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지순례를 위한 기도

사랑으로 우리를 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겪었던 수많은 시간과 걸어갔던 길을 따라
함께 걷고 묵상하며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였는지
되새기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갖 수난을 기꺼이 참아 견디신 주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땀과 피로써 증거하다
장하게 돌아가신 그 믿음을 되새기려 합니다.

청하오니 선조들의 그 뜨거운 신앙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본받아 그분들의 삶과 죽음 안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각자 한 몫을 다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지순례에 관한 참고자료

가. 도보성지순례

▲ 왜 도보성지순례인가?

순례란 단순한 관광 여행이 아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본래 지존한 하느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여행이다. 성지뿐 아니라 성인들의 묘소나 성당 등을 순례하는 것 역시 신자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신앙을 길러주며, 사도직 수행에 자극을 준다.

이분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성지순례는 신앙과 기도 안에서 친교의 기회마저 제공해준다.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이뤄지는 순례의 길은 성인의 신앙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수련이며, 성지 발전과 활성화라는 종교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도보성지순례는 함께 걷는 이들과 더욱 끈끈한 친교의 정을 쌓고, 편리한 교통수단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멀리하며, 그리스도와 먼저 세상을 떠난 신앙선조들의 힘든 여정을 느끼고 실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신앙은 삶이고 곧 체험인 것이다.

대전교구장 유홍식 주교는 “순교자들이 가신 길을 따라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 하느님이 보일 것”이라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주님)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보성지순례 장려하는 교회

도보성지순례를 떠나는 이들은 다양하다. 청년 뿐 아니라 어르신,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순례를 떠난다.

현재 각 본당들은 도보성지순례의 장점을 알고 본당의 날 행사 혹은 순교자성월 등을 맞아 도보성지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함께하며 친교를 다지고, 각자의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선 도보성지순례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꼭 단체로 일정을 계획하고 도보성지순례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료와 친교를 쌓기는 어렵겠지만, 홀로 집을 꾸러 도보성지순례를 나서는 것도 좋다.

각 교구는 현재 신자들이 좀 더 쉽게 도보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순교성지들을 중심으로 한 순례 여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 단체, 개인으로 순례를 마친 이들에게는 인증서 혹은 기념품 등을 수여해 순례의 결실을 더욱 풍부히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나. 국내성지순례 현황과 과제

자동차를 저속기어로 바꾼다는 뜻의 ‘다운시프트족(downshifts)’ . 고소득이나 빠른 승진보다는 저소득일지라도 여유있는 생활을 즐기면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가생활이 우리 삶에서 점점 높은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주5일제가 크게 확산되며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변해가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교회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흐름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로서 ‘성지순례’를 추천한다. 순례는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까지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을 떠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 더 나은 성지를 위하여

성지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애쓰고 있다. 성지가 가진 고유한 정신과 환경 등을 이어나가면서 가톨릭신자 개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민을 위한 다기능적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성지들도 많다. 현재 한국의 성지는 순교자들의 발상지와 탄생지, 유서 깊은 성당과 교우촌, 피를 흘린 순교지, 순교자·성인 묘소 등을 포함해 100여 개 이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지들이 모두 ‘개발’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개발된 성지는 계속해서 찾고 잊혀진 성지는 영원히 잊혀진 성지로 남게 된다.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맞물려 관광자원과 연계하지 않는 이상 후원금 없이 자체적인 힘으로는 개발은 물론 ‘보존’도 어렵다.

가톨릭 신자에게 성가정을 이루게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간접 선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행사냐 순례냐 그것이 문제

신자들이 성지를 찾는 동기가 ‘순례’ 보다는 ‘행사’적 성격에 치우쳐있다는데 있다. 본당의 날이나 단체 단합대회 차원으로 성지를 찾고 있는 신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바쁘게 짜인 프로그램에 시간을 맞추다 보면 순교자들의 삶을 성찰할 진지한 자세란 생각하기 어렵다.

‘행사적 성격’의 성지순례는 성지를 찾는 월별 순례자 그래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날씨가 비교적 좋은 4, 5월과 순교자성월인 9월, 묵주기도 성월인 10월, 입시를 앞두고 자식들의 대학합격을 기도하는 11월이 다른 달 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실제로 우리는 순례를 떠나기 전, 일부 신자들이 성지 안 식당의 유무를 점검하고 근처 관광시설과 취사 가능여부, 돛자리를 펼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모습을 자주 본다. 순교자의 신심을 기리고 성지의 역사를 공부할 시간은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성지순례는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하느님과 닮은 인간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존경하는 순교자를 찾아 나를 비추어보는 여행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하느님과 신앙’을 잠시 놓쳤을 때, 다시금 그분을 일깨워 주는 곳이 ‘성지’인 것이다.

▲ 우리에게 남은 숙제를

지난 8월 20~21일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 성지순례사목 소위원회는 올바른 성지순례문화 정착 방안을 위해 전국 성지소개를 홈페이지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성지소개 소책자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신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에 통일된 양식으로 성지를 등재하고 유적지나 문화재로 등록해 도로안내이정표를 세우는 방안도 모색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모색으로 끝나지 않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관심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성지순례를 친구들과 떠나는 화합의 장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영성을 전하고 개인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후세에 물려줄 순례의 참모습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를 개개인의 손에 달려있다.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 떠나는 성지관광이나, 신앙선조의 신심과 열을 배우기 위해 일어서는 성지순례냐’는 질문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다. 올바른 성지순례를 위해

▲ 성지순례 준비

지식이 없는 순례는 ‘관광’이다. 준비 없는 순례에서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신앙선조의 숨결이 서려 있는 성지에 도착해서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머물렀는지 또는 어떻게 죽음을 당한 곳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본당 단위로 가는 성지순례라면, 순교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러 장에 걸쳐 글과 사진, 그림 등으로 표현해 성당마당이나 로비, 사무실 등에 전시해 놓을 수 있다.

9일 전에 준비모임을 갖고 순례자들 모두가 준비물과 프로그램을 숙지할 수 있게 한다. 모임에서는 성지에서 지켜야할 에티켓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술과 과도한 도시락은 가져오지 말 것, 휴대전화를 꺼놓을 것 등이다.

시간이 된다면 성지를 가기 전, 9일 기도를 바쳐도 좋다. 이상각 신부(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성지순례사목 소위원회 간사)는 “무엇을 준비할 때 신자들이 모여 9일 기도를 바치듯이 성지를 가기 전에도 9일 기도를 하면 순례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말했다.

도보성지순례의 경우에는 순례를 하면서 부를 수 있는 성가나 주제가 등을 정해 미리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인근 관광지나 식당 여부를 알아보는 준비모임이 아닌 ‘진정한 성지순례’를 하기 위한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준비 모임 때는 봉사자용과 참가자용으로 구분해 만든 워크북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자세한 일정과 순례지에 대한 소개, 이곳 순교자들의 일화, 지도, 응급처치법까지 곁들여 본다.

▲ 성지순례 당일

‘순교와 증거의 발자취’라는 책에서는 ‘성지순례의 시작은 성지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신앙 선조들처럼 우선 자신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들이 걸어갔던 핍박과 고난, 험난했던 길을 순교자들의 전구로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보자.

미리 준비해온 생활성가를 부르거나 묵주기도 5단을 함께 바친다. 103위 한국 성인 기도문,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문을 외는 것도 좋다. 혹은 순례지에 대해 미리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퀴즈 맞추기나 스무고개 등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를 사용해도 주위를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놀이’는 성지까지 가는 시간을 활용해 자칫하면 지겨워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지식을 함께 선사할 수 있다.

▲ 성지순례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 순례지에 대해 미리 공부하자.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순례를 떠나기 전 순례지 성지들에 대한 역사와 그곳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일대기 등에 대해 공부해 놓자. 종교서적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관련 자료가 풍성하다.

○ 순례를 하는 동안 미리 공부해 두었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꺼내보자. 기도와 묵상만 하며 길을 걷기는 힘들다. 친구들끼리 성지나 순교자에 대한 퀴즈놀이, 스무고개 등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걷는다면 순례길이 훨씬 쉽고 재미있을 것이다.

○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오자. 꼭 필요하다면 순례하는 동안만이라도 꺼두자. 순교자들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며 걷는 데 전화소리가 울린다면 그보다 더한 방해꾼은 없을 것이다. 휴대폰을 잠시 멀리 하면 순례를 더욱 알차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론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 자연이 주는 해방감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떠나기 전 9일 기도, 묵주기도 등을 해 마음을 다잡아보자. 혹은 금연, 금주 등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절제를 통해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진정한 순례를 떠날 준비를 해보자.